

# 저소득 중장년 남성의 건강만족도 및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박수선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Effects of Health Satisfaction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Depression of Low Income Middle-Aged Me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Su-Sun Park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만족도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우울상태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장년 연령 50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15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건강만족도에 대해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가족관계만족도에 대해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저소득 중장년 남성을 위한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밝혀냄으로써, 추후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서비스의 타당성 검증에 효과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 중장년 남성, 건강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우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ealth satisfaction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low-income middle-aged men who are expected to have great economic difficulties.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to see what kind of change in the depressive state according to the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statistics program using data from the 15th Korea Welfare Panel for middle-aged adults aged 50 to 64 yea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on depression, it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health satisfaction and a fully mediating effect 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o clearly reveal the effect of service support for improving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for middle-aged men on mental health such as depression, in the future effective standards can be provided for validation of the validity of social network support services for middle-aged men.

**Key Words** : Middle-aged men, Health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epression,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This paper is a study presented at ICSMB2021.

Corresponding Author : Su-Sun Park(sunybono@gmail.com)

Received December 20,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2

Revised February 5,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 19의 확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1], 가구소득 감소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 코로나 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위 경제허리라고 불리는 39세~49세와 50~59세 이상의 고용률 추이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0.7%, 0.1%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2]. 특히 30~49세의 고용률은 2017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세대의 고용률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0위로 나타났다[2]. 이상의 실태자료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현재, 저소득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부문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1년 12월 현재 전국 중장년 인구는 12,771,960명(24.7%)이며[3], 2024년에 전국은 중장년 인구가 12,962,131명(24.8%)으로 확대되어 최고치에 이르며, 2025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4]. 중장년은 신중년, 중년이라 불리며 일반적으로 베이비붐세대(55년생~63년생)와 1990년대에 X세대로 불려왔던 1960~197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5]. 중장년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징검다리의 시기로서 다양한 역할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자극들이 복합적으로 표출된다. 중장년 시기에 과업을 잘 수행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여부는 가정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며[6],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7]. 실제로 2018년 시행된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8]에 따르면 연령대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0, 30대에 비해 40~50대의 점수가 낮았으며, 60대 이상부터는 삶의 만족도 점수가 현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장년 세대의 발달과업 수행이 현재 사회 환경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또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현저히 부족하여 중장년 이후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만족도가 낮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중장년 세대에 대한 정부정책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부처에서 중장년에 대한 자료와 정책을 발표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교육부 등 여러 곳이다. 이들 부처에서 제시하는 용어는 중년과 장년, 중장년, 신중년 등으로 다양하며 각각 기준도 다른 실정이다. 고용노동부[9]의 경우 5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하여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50~64세를 '장년'이라고 정의하고 '5060 장년 고용대책' 발표하였고,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4]. 이렇듯 정부부처 조차 연령 적용 기준이 다르지만 최근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중장년 조례를 지정하여, 중장년의 연령대를 규정하고 지역별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장년 관련 조례에서는 중장년의 연령을 50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10].

중장년 세대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경기복지재단 조사[11]에서는 고용악화, 사회적 고립, 정책의 사각지대, 행정조직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고용악화 부문에서는 2019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대 중장년의 고용률 하락 폭이 가장 크고, 주로 임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간가구소득(가처분소득)은 중장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고립 부문에서는 열악한 고용과 낮은 소득은 이혼 등과 같은 가족관계 단절과 그로 인한 1인 중장년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 사각지대 부문에서 중장년 세대는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은 지고 있으나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낀 세대'이지만, '일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복지정책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행정조직도 없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 기혼 남성은 지금까지 가정의 경제적 역할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비호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각도 있으며, 가부장적 권위는 하락했지만 가족내에서 중장년 가장이 갖는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은 여전히 큰 것으로[12] 나타났다. 중장년 남성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속에서 부부 역할, 자녀양육의 역할, 가정 내 경제적 역할 수행과 같은 가족 역할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개인 삶에 취약성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13]. 실제로 통계청 조사[14]에 따르면, 50대 1인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로 이혼과 미혼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우울과 같

은 정서적 상실감 및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복지재단 연구[15]에 서는 40-50대 남성은 새로운 고독사 위험집단으로, 이들은 혼자 살면서, 지병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무직이며 이혼 등의 가족 특성과 실직,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로 이르는 패턴을 제시한 연구[16]에서도 중장년 남성이 파산 또는 명예 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 가족 관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별거나 이혼 등으로 혼자 생활하게 된다고 하였다. 혼자 지내면서 식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알콜 섭취 비중이 높아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면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고독사에 이르게 된다[16]고 분석하였다. 여기서 중장년 남성의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해결과 중장년 남성의 건강에 대한 만족은 고독사로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의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이 가족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악화를 야기시키며, 이러한 누적된 일상의 어려움이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되어 우울 증가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17-22]를 종합해 볼 때, 중장년 세대의 심리적 안정에 사회적 관계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매개 역할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장년 남성은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질병, 실업,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은 사회보험 또는 기업복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고, 이혼 등으로 인한 정서적 상실이나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어 사회보험만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노후생활 보장을 구성하는 퇴직금이나 연금제도 등은 중장년층이 아닌 노년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장년층 남성은 경제적 준비가 미흡하고 고용상태의 불안정함이 높아질수록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만족도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우울상태가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매개 효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 조례에 근거한 중장

년 연령 50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초기를 경험한 연구대상이 포함된 2020년 15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변화속에서 저소득층 중장년 남성을 위한 우울 감소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포함한 생활전반으로의 복지 부문 확대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과 가족관계 만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020년도 15차 데이터 전체 대상자 11,457명에서 패널데이터 기준에 의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3,793명을 1차 선별하였다<sup>1)</sup>. 불성실 응답자 295명을 제외한 3,498명을 선택하였고 이 중 남성 1,201명을 선택하였다. 해당 인원 중 현재 지자체 중장년 조례에 명시된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남성 18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경제활동 유형, 주거보유상태, 혼인상태를 통제변수로 선정하고, 건강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우울척도는 CESD-11[24]을 활용하였는데, 11문항에 대하여 지난 1주일동안의 기분을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 간)',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 간)',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884로 나타났다. 건강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본 연구 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이 구분한 소득집단별 2개 계층(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중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60%미만에 위치한 저소득 가구임

###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SPS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5].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면 부분매개효과가 있고,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연간 가구소득, 경제활동 유형, 주거보유 상태, 혼인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을 살펴보면 중장년의 연령 범위인 50세부터 64세의 연령 범주를 3개의 연령 집단으로 재구분하여 살펴보면, 60~64세인 경우가 73명(4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50~54세와 55~59세인 경우는 각각 53명(29.4%), 54명(30%)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7.74세(표준편차=4.36)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에 대한 특성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78명(43.3%)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40명(22.2%)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졸업이 33명(18.3%)을 차지하였다. 대학교 졸업인 경우 18명(10%), 전문대 졸업인 경우 8명(4.4%), 대학원 졸업인 경우 3명(1.7%)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연간가구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94명(52.2%)이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인 경우는 86명(47.8%)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유형은 무직인 경우가 84명(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시직, 일용직 유형이 44명(24.4%)을 차지하였다. 자영업인 경우도 38명(21.1%)로 나타났으며, 상용직은 11명(6.1%), 고용주는 3명(1.7%)로 나타났다. 주거상태 보유에서는 자가인 경우

가 87명(48.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월세가 74명(41.1%), 기타인 경우가 19명(10.6%)이었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에서는 기혼인 경우가 66명(3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혼, 별거 및 사별인 경우가 59명(32.8%), 미혼이 55명(30.6%)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Division	n	Percent(%)
Age	50~54 years	53	29.4
	55~59	54	30.0
	60~64	73	40.6
	M=57.74 (SD=4.36)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0	22.2
	Middle School	33	18.3
	High school	78	43.3
	College	8	4.4
	University	18	10.0
	Graduate school	3	1.7
Annual household income	Less than 20 million won	94	52.2
	20 million ~ 40 million won	86	47.8
Type of economic activity	Full-time employee	11	6.1
	Temporary / daily workers	44	24.4
	Employer	3	1.7
	Self-employment	38	21.1
	Not employed	84	46.7
House occupation type	House owner	87	48.3
	Lessee	74	41.1
	Others	19	10.6
Marital status	Married	66	36.7
	Divorced, separated, or deceased	59	32.8
	Single	55	30.6

\*p<.05 \*\*p<.01 \*\*\*p<.001

### 3.2 주요 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저소득 중장년 남성의 건강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우울의 특성과 변수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중장년 남성이 경험하는 우울은 16.61(표준편차=5.73)로 나타나 보통수준의 우울감을 나타냈으며, 건강만족도는 평균 2.97(표준편차=.93)로 중간수준을 보였다, 가족관계만족도는 평균 3.63(표준편차=.66)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사회적 친분관

계만족도 역시 평균 3.37(표준편차=.73)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확인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of Key Variables**

Variable	Health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Depression
Health satisfaction	1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5*	1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31**	.33**	1	
Depression	-.48**	-.20**	-.34**	1
Mean	2.97	3.63	3.37	16.61
standard deviation	.93	.66	.73	5.73

\* $p < .05$  \*\* $p < .01$  \*\*\* $p < .001$

연구대상자인 저소득 중장년 남성이 경험하는 우울, 건강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과 건강만족도( $r = -.48, p < .01$ ), 가족관계만족도( $r = -.20, p < .01$ ),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r = -.34, p < .01$ )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가족관계만족도와 우울의 상관관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와 건강만족도( $r = .31, p < .01$ ), 가족관계만족도( $r = .33, p < .01$ )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와 건강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15, p < .05$ ).

**3.3 우울에 대한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 매개효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의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Fig. 1과 같이 건강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52.14, p < .001$ ), 회귀식의 설명력은 2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8, t = -7.22, p < .001$ ). 2단계에서의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9.27, p < .001$ ), 회귀식의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1, t = 4.39, p < .001$ ). 마지막 3단계에서 건강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32.45, p < .001$ ), 2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건강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고, 1단계에서의 건강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beta$ 의 절대값)가 -.48에서 3단계 -.41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Sobel  $Z = -2.57, p < .05$ ),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가 건강만족도와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4, Fig. 2와 같이 1단계에서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7.42, p < .01$ ), 회귀식의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0, t = -2.72, p < .01$ ). 2단계에서의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2.38, p < .001$ ), 회귀식의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3, t = 4.73, p < .001$ ).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on Health Satisfaction and Depression**

Stage	Predictors	Reference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F
1	Health satisfaction	Depression	-2.92	.41	-.48	-7.22***	.23	52.14***
2	Health satisfaction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25	.06	.31	4.39***	.10	19.27***
3	Health satisfaction	Depression	-2.51	.42	-.41	-6.04***	.27	32.45***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1.68	.53	-.22	-3.18**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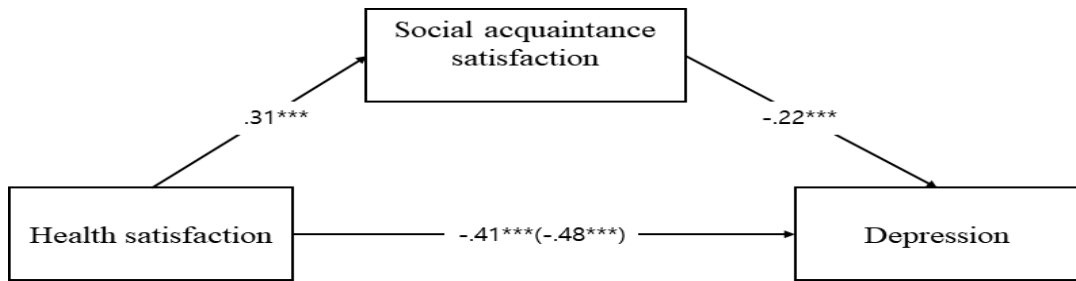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on Health Satisfaction and Depression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on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ression

Stage	Predictors	Reference variable	B	SE	$\beta$	t	R2	F
1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epression	-1.74	.64	-.20	-2.72**	.04	7.42**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37	.08	.33	4.73***	.11	22.38***
3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epression	-.83	.65	-.10	-1.29	.13	12.73***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2.43	.58	-.31	-4.1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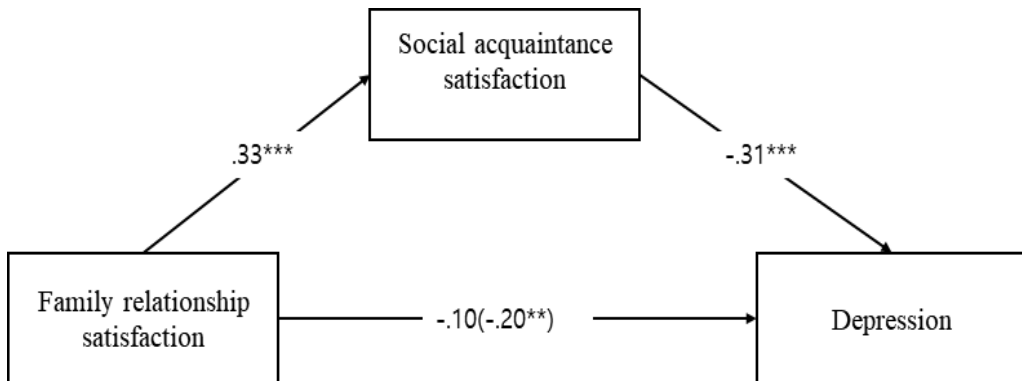


Fig. 2.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quaintance Satisfaction on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ression

마지막 3단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와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2.73, p < .001$ ), 1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고, 1단계에서의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beta$ 의 절대값)가 -.20에서 3단계 -.10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Sobel  $Z=-3.13, p < .05$ ),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가 가족관계만족도와 우울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만족도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우울에 대한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각 지자체 중장년 관련조례에 명시된 중장년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50~64세 이하의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패널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계층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중장년 남성이 경험하는 우울은 16.61(표준편차=5.73)으로 보통수준의 우울감을 나타냈으며, 건강만족도는 평균 2.97(표준편차=.93)으로 중간수준을 보였다, 가족관계만족도는 평균 3.63(표준편차=.6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는 평균 3.37(표준편차=.73)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연구대상자인 저소득 중장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우울, 건강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우울과 건강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와 건강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와 건강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만족도에 대해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가족관계만족도에 대해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저소득층 중장년 남성의 우울을 탐색하기 위하여 건강만족도와 가족관계만족도가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여 변수들간의 관계 구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가 건강이나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추후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서비스의 타당성 검증에 효과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중장년 남성은 시기적으로 직장 관계 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시기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장년 남성의 직장 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가구소득이 감소할 경우 사회적 친분관계를 형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중장년 남성의 사회적 관계망 확충을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중장년 남성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지역사회 기반 동아리 모임과 같은 다양한 오프라인 소모임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산업복지에 제한되었던 중장년 남성을 위한 복지를 중장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로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는 중장년 세대 전반을 위한 복지로 현행 복지체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황경란 외(2018) 연구[4]에 서처럼 중장년 남성에게 일자리 위주의 지원이 아닌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고 정서적, 관계적 측면을 연결한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장년 남성의 원만한 가족관계와 건강만족도는 현재 중장년의 고독사로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15,16]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다.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를 예방하고 점검하는 방법으로 중장년을 위한 건강 및 가족생활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장년 세대에 해당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항목 확대,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는 것도 가능한 지원으로 여겨진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 증가 등 정신건강 측면의 어려움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사회적 관계망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바로 개설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중장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 중장년 남성과 관련있는 사업을 참조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의 '1인가구를 위한 포털 사이트'와 같은 중장년 남성을 포함한 중장년 세대를 위한 제도나 서비스를 종합하여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지역내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의 특성상 기존 데이터에서 구성된 변수들을 활용해 독립변수를 구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택한 변수의 문항 자체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더욱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구성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 중장년 남성의 우울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일반가구 중장년 남성을 함께 조사하여 전체 중

장년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패널 자료는 조사 시기적으로 코로나 19를 경험한 연구대상이 포함된 자료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중장년 남성의 초기 생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어 코로나 19 전 후의 중장년 남성의 생활 변화에 대해 폭넓게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S. Y. Song. (2021. May). *The impact of COVID-19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BOK Issue Note, Bank of Korea.
- [2]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21). *Collapsing economy, 3040 employment rate 30th out of 38 OECD countries (2020)*. October 14 press release.
- [3]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1).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and household status.
- [4] K .R. Hwang, S. S. Park, J K. Ahn, S. H. Cho & H. S. Park. (2018). Gyeonggi-do middle-aged and senior citizen analysis and support plan research, policy research report,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5] J. K. Baek, J. S. Ahn, M. O. Choi & J. Y. Kim.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opera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training courses for middle-aged adul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nge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6] E. R. Bang. (2001). The meaning,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Korean middle-aged me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Human Development Conference*, 6, 37-60.
- [7] M. J. Kim & G. B. Kim. (2013). Influenc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middle aged adults an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150-158.
- [8] M. G. Kim, T. J. Lee, T. M. Song, S. H. Woo & S. A. Kim. (2018). *A 2018 social security public awareness survey stud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y Division for Aging Society. (2021). *An overview of employment incentives for suitable positions for the new year 2020*.
- [10] J .H. Moon. (2020). An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the supporting the middle-aged.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75(2). 255-282.  
DOI : 10.21194/kjgsw.75.2.202006.255
- [11] K. R. Hwang. (2019). *The middle-aged in crisis, Gyeonggi-do is the solution*. G-Welfare Brief 3,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12] E. S. Park(2014).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study of aging in middle-aged men*.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thesis.
- [13] S. E. Cho & J. Y. Song. (200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iddle-aged men who perform multiple roles*. Forum for Labor Force Development for the Aged. First Issue, 95-96.
- [14] Statistics Korea. (2018).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15] I. J. Song. (2016). *A study on the status of lonely deaths and support measures*. Seoul Welfare Foundation.
- [16] S. S. Park & M. Y. Lee(2017).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Conference Papers*, 11, 139-149.
- [17] S. Y. Son. (2016).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exclusi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middle-aged individual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4(3), 64-92.
- [18] J. W. Kim & T. J. Lee. (2018). Economic instability and the mental health of middle-aged men. *Health Economy and Policy Studies*, 24(1), 142-166.
- [19] S. H. Park & Y. H. Choi. (2020).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the social isolation of middle-aged males with high risk of lonely death: Focused on emergency welfare support recipient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68, 45-78.  
DOI : 10.47042/ACSW.2020.08.68.45
- [20] S. S. Choi, G. R. Lee & S. M. Lee. (2008). The effect of social networks and retirement experiences on the health of middle-aged and elderly Koreans.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2), 291-307.
- [21] H. J. Lee, Y. K. Kwak, J. H. Jeon, H. R. Ku & G. S. Byeon. (2020). *Social Anxiety and Social Security Issues in Korea-Social Anxiety of Young and Middle Ag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 [22] S. Ranjan & R. S. Yadav. (2019). Social Isola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An International Journal*, 26(6), 1905-1920.

- [23] M. J. Bae. (2006). *The effect of personal psychological and job-related variables on retirement expect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thesis.
- [24] F. J. Kohout, L. F. Berkman, D. A. Evans & H. J. Cornoni. (1993). Two s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 [25]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박 수 선(Su-Sun Park)

[정회원]



- 2020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04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가족복지
- E-Mail : sunybono@seowon.ac.kr